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종교

이 계 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요약>

한국인의 傳統家庭教育思想이란 한국인의 전통교육사상이 家庭이란 교육의 마당에 정형화된 교학사상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전통교육사상은 한국인의 홍익인간하는 인격주의 문화와 조상숭배의 전통, 그리고 성숙변증법적인 교학사상의 풍토 속에서 고구려는 A.D 372년에 太學을, 신라는 A.D 682년에 國學을 설립함으로써 공적으로 先秦儒學의 교학사상을 마찰 없이 수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性理學의 이데올로기를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리학의 교학사상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수용한 선진유가와 성리학의 교학사상이 갑오개혁 이전까지 家庭이란 교육마당에 정형화 된 것이 이른바 韓民族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사상을 究明하기 위하여 먼저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삶과 교육문화의 원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대 중국문헌을 중심으로 고대 韓民族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孝와 敬, 敬과 嚴父慈母의 교육원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이 東夷族으로 지칭했던 고대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발해만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보기에 군자다운 풍모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역사의 여명기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君子之國, 君子不死之國으로 인식해 왔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도 君子之鄉, 東方禮義之國이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韓民族과 문화의 '본풀이'요, '말미'라 할 수 있는 단군신화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의 이념이자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즉, 한국인에 있어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은 弘益人間하는 삶이요, 이상적인 인간상은 弘益人間이다. 그러므로 한국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弘益人間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인격교육의 기본과정은 '고난→죽음→재생'이고, 방법적 원리는 자발성, 열정성, 참을성이며, 궁극적으로는 탈각성(깨달음)이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단군

신화와 삶 자체였다.

단군신화에 표방된 이 人格主義의 문화와 한국인의 유별난 祖上崇拜文化는 유가의 교학사상을 수용하면서 한국인의 전통 교학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유가의 교학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고, 그 본질은 仁이며, 사람다운 사람은 君子이다. 그리고 군자가 仁을 실현하는 방법적 원리는 德의 근본인 孝이며, 孝의 본질은 敬이다. 敬은 '愛(사랑)와 嚴(두려움)'이 복합된 情感이다. 따라서 教育學의 목표인 立身行道는 敬의 확충을 통해 仁을 실현한 상태이며, 이를 실현한 이가 곧 君子이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그가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러한 유가의 교학사상이 한국인의 인격주의 문화와 조상숭배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한국인의 가정이란 교육의 마당에 정형화 된 것이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는 '孝와 嚴父慈母'이다. 孝는 자녀들이 부모공경의 생활을 통해 인격의 실체인 敬을 확립해 가는 방법적 원리고, 嚴父慈母는 인생의 초기에 자녀들에게 인격의 바른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녀교육의 방법적 원리이다.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전통가정교육사상과 방법적 원리는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인 한국인의 자랑스런 문화전통이자 보편성을 띤 人格教育의 原理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바른 틀이다.

핵심주제어 : 孝, 敬, 仁, 嚴父慈母, 弘益人間, 人格主義, 祖上崇拜文化, 立身行道

Korean Traditional Thought of Family Education

Lee, Keay Har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bstract>

Korean Traditional Thought of Family Education(KTTFE) means the educational thought that the traditional thought of the Koreans has formed home. This KTTFE has been shaped on the ground of 'characteristic culture focusing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弘益人間)', 'tradition of respecting ancestor', and 'dialectical thought of the sacred & the profane', and influenced by Confucianism. Concretely speaking, the educational thought of original Confucianism was publicly imported into Korea without resistance, when Korean Koguryer Kingdom established the public school called as Taehark(太學) in A.D. 372, and when Korean Shilla Kingdom built up the public school named as Gookhark(國學) in A.D. 682. Then, the educational thought of Chinese Sung Confucianism(Chinese Dualistic Philosophy) was organized in Korean Chosun Dynasty, with accepting the doctrines of it. These educational thought of original and Sung Confucianism was so-called KTTFE which was formed in Korean home, before Gahbo Reform(甲午改革) in Chosun Dynasty.

This study aimed to look into KTTFE. So the life of ancient Koreans and the archetype of their educ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with focusing Tankun-Myth firstly, and then Chinese ancient references. After that, the relation of educational principles as the foundational factors of KTTFE were analyzed: between filial piety(孝) and reverence(敬), and between reverence(敬) and 'strict father and benevolent mother(嚴父慈母)'.

The ancient Koreans were in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Bahlhae-Bay near Chinese Yodong Peninsular, and were named as Dongyi(東夷)-Tribe. They were 'men with virtue(君子)' who would live enjoying the worthy living as worthy men, in viewpoint of the ancient Chinese. So the ancient Chinese recognized Korea as a nation of men with virtue, or a nation of having always men with virtue. Likewise, we Koreans have taken pride in our country as original place of men with virtue, or oriental nation with courtesy.

Thus the ideal of Korean life and culture is to devote himself to the welfare of manki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ing Tankun-Myth which is the Alpha and the Omega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the point of the science of religion. Like this, the Korean life considering as worthy life is to devote himself to the welfare of mankind, and the ideal Korean is the man who live devoting himself to the welfare of mankind. Therefore the final goal of Korean education is to foster people who can devote himself to the welfare of mankind, and the basic process of character education is "suffering $\Rightarrow$ death $\Rightarrow$ resurrection". Its methodological principles are spontaneity, passion, perseverance, and finally awakening. And its educational content are Tankun-Myth and life itself.

As synthesizing the above, the traditional thought of Korean education has been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 culture of Tankun-Myth and the Korean unique culture of respecting ancestor, with accepting the educational thought of Confucianism.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thought of Confucianism, man is a relational being, and a model of worthy human being is the man with virtue. The methodological principle that the man with virtue realizes goodness(仁) is through filial piety(孝) as the foundation of virtue(德), and the essence of filial piety is reverence(敬). Reverence is the mixed mind and feeling with love(愛) and fear(畏). Therefore 'succeeding in life to develop high character(立身行道)' is the educational goal for filial piety(孝), and is the state realizing goodness through enlarging reverence. People realizing this state is the very men with virtue, and we Koreans have regarded them as people who devote themselves to the welfare of mankind(弘益人間).

So KTTFE is what has harmonized both the characteristic culture and the culture of respecting ancestor in addition to the educational thought of Confucianism, with formed in educational relation called as family. The core principles of KTTFE are 'filial piety(孝)' and 'strict father and benevolent mother(嚴父慈母)'. Filial piety(孝) is the methodological principle to enlarge reverence as the real of character through filial life respecting parents. Strict father and benevolent mother(嚴父慈母) is the methodological principle for educating children to form correctly the frame of character in early time of life span. According to this, KTTFE and its methodological principles can be the Korean cultural tradition and the general rules for character education. Thus it will be an educational correct frame which will have to be

preserved continuously forward, if man as a relational being remains living with the others.

Keyword : 孝(Filial Piety) · 敬(Reverence) · 仁(Goodness) · 嚴父慈母(Strict Father and Benevolent Mother) · 弘益人間(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 · 人格主義(Principle Focusing Personal Character) · 祖上崇拜文化(Culture Respecting Ancestor) · 立身行道(Succeeding in Life to develop High Character)

I. 머리에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문화의 원형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 형식은 변할망정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巫敎는 외래종교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자기는 陰性化해 버리고 창조적으로 외래종교를 융합한다. 말하자면 韓國 巫敎는 외래종교로부터 그 '형식'을 빌어올 망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종교로 재창조해 낸다는 것이다.¹⁾ 특히 한국사상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는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의 하나로,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적 풍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종교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한국 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한편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文化는 敎育이란 활동을 통해 전승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르치고-배우는 문화전승의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는 나름대로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동시에 그것을 전수하는 敎育이 존재하는 만큼,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인 敎育은 결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인의 삶의 시작과 더불어 비롯된 한국인의 敎育문화는 타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변화 속에서도 고유한 삶의 방식을 전승시켜 왔으며, 민족과 국가의 삶의 기본적인 틀

1)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142쪽.

2)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서울 : 동방학술연구원, 1988), 311-312쪽.

을 형성하고, 문화발전의 기층을 형성하는 전통문화를 이루어 왔다. 특정 사회의 전통 문화는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문화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되는 만큼, 전통문화의 하나인 교육사상을 검토하는 것은 문화현상으로서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교육문화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정은 교육적 영향력이 가장 오래, 가장 크게 발휘되는 최초/최장의 학교이다. 그런 까닭에 삶다운 삶과 사람다운 사람의 바른 기초를 마련하는 교육의 마당(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사상을 한국의 전통교육사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孝와 嚴父慈母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은 한국인의 敎學思想이 家庭이란 교육의 마당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정형화된 교육사상이요, 방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³⁾ 이 교육의 원리가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까닭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고대 한국인의 삶과 敎育의 原형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전통가정교육사상의 방법적 원리로서 孝와 敬, 嚴父慈母의 敎育原理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하며, 결론 부분에서는 고대 우리 민족의 교학사상과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 및 방법적 원리가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인의 삶과 교육

1. 한국인의 삶의 이념

고대 한국인들을 東夷族이라 지칭했던 시대에 중국문헌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일별해 보면 고대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素描할 수 있다. 『죽서기년』과 『삼국지』에 의하면 “肅愼이 활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고,⁴⁾ 「사기」<순임금편>에는 “북쪽에는 산융인 發息愼이 있고, 이 식신을 肅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東夷族”라는 기록이 있다.⁵⁾ <우임금편>에는 “鳥夷는 東北民인데 새 짐승을 잡아먹고 산다” 하였고, “『팔지지』에 이르되 이 산에는 새짐승들과 나무들이 모두 회고, 그 나라 사람들은 산과 숲 속에 사

3) 이계학 외,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71-275쪽.

4) 『滿洲源流考』 卷一, 部族一 肅愼, “竹書紀年 帝舜有虞氏二十五年 息愼氏朝貢弓矢” : 『三國志』, 東夷傳序, “自虞至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愼矢之貢”.

5) 『史記』 卷之一, 五帝本紀第一 虞舜者, “北山戎發息愼. 註 鄭玄曰 息愼 或謂之肅愼 東北夷”.

는데 기후가 몹시 추워서 굴속에 살며, 굴이 깊은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세고 용감하여 활을 잘 쏘며, 활의 길이가 넉 자인데 화살은 싸리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한 자 여덟 치이고, 화살촉은 청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⁶⁾ 또한 「사기」<조선전>과 「후한서」에는 “東夷는 천성이 유순해서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하였으며, “부인들은 정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며 음탕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범엽>의 「후한서」에는 “肅慎 사람들은 고깔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祭器와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東方有君子不死之國”이라 평하였다.⁷⁾

또한 「산해경」과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고대 한국인들은 길을 비켜주고 다투지 않으며, 禮義를 지키는 질서 속에서 조용한 아침의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⁸⁾ 「前漢書」卷28(下) <지리지>에 의하면 “朝鮮의 東夷族은 천성이 부드럽고 공손하며, 三方의 민족과 다르다”고 하였다.⁹⁾

그 밖에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해경」에는 “예로부터 그 곳에는 온화하고 유순하며, 소박한 성품을 지닌 박민(발족?)이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¹⁰⁾ 『산해경』 해외남경에서 “東夷는 君子國으로서 옷과 갓이 있고, 칼을 차며, 짐승을 잡아먹고 文武 두 가지를 崇尙한다”고 하였다.¹¹⁾ 또한 <해외동경>에 “東夷는 9종인데 君子國으로서 어진 教化가 퍼졌음으로 孔子도 九夷에 살고자 했다”는 것이다.¹²⁾ 「풍속통」에는 “동방 사람들은 만물을 살리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만물은 땅에서 뿌리를 박고 나오는데 夷는 뿌리로 東夷는 아홉 갈래”라 하였다.¹³⁾

유승국에 의하면 이들 史料보다 앞선 B.C. 1300년대의 龜甲卜辭나 鹿頭刻辭등에 東夷族의 古名인 人方이 ‘人’字 하나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人字는 ‘사람’이란 보통명사가 아니라 人方族을 호칭하는 固有名詞라는 것이며, 기원전 10세기에는 東夷가 東人으로 나타나는 바, 許慎의 「설문해자」에 의하면 夷와 人은 같은 것이며, 仁과도 같은 것

6) 『史記』卷二, 鳥夷被服, “集解 鄭玄曰 鳥夷東北民 博食鳥獸者. 正義 括地志云 靺鞨國古肅慎也. 在京東北萬里已下 東乃北各抵大海 其國南白山 鳥獸草木皆白 其人處山林間 土氣極寒 常爲穴居以深爲貴 多勇力善射 弓長四尺如弩 矢用楛長一尺八寸 靑石爲鏃”.

7) 유승국, 앞의 글, 328쪽.

8) 송향룡, 도교신앙의 전개양상과 생활세계, 『한국사상사대계』 2,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84쪽.

9) 최삼룡, 선인설화로 본 한국고유의 선가에 대한 연구,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도교와 한국사상』, (서울 : 범양사, 1987), 381쪽 재인용.

10) 송향룡, 앞의 글, 384쪽.

11) 『산해경』, 해외남경, “君子國 衣冠帶劍 食獸 使二文(大)虎在旁 外國圖 去瑯琊三萬里”.

12) 위의 글, 해외동경, “不死人在交脛東 其爲人黑色 壽不死 並在東方也 有夷九種 故孔子欲居九夷”.

13) 안호상, 『배달동이는 동이겨레와 동이문화의 발상지』, (서울 : 백악문화사, 1978), 72쪽 재인용.

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맹자」에 “仁은 人也”라 하여 仁보다 人이 앞선 것을 보면 東夷族을 지칭하던 人을 후대에 중국에서 인간이란 ‘普通名詞’로 차용했다는 <勞幹>의 논증을 인용하여 참다운 ‘人間的 原型’은 韓民族에서 由來하였다는 것이다.¹⁴⁾

위에서 고찰한 古代 中國文獻과 中國의 正史에 산견되는 東夷族에 대한 사료와 갑골문의 연구로 나타난 중국인들의 東夷族에 대한 인상을 스케치해 보면 고대 한국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B.C. 1300여년 이전부터 ‘君子다운 風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며, ‘사람다운 사람’의 원형이고 ‘삶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성이 유순하고, 사양심이 있으며, 믿음이 있고 용감하며, 활을 잘 만들어 수출하고, 사냥을 즐기며 祭器를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절바른 사람들이며, 부녀자들은 정조가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중국인들도 아득한 예로부터 韓國만은 ‘君子之國’ 또는 ‘君子不死之國’으로 지칭했던 것이며, 孔子와 같은 성인도 東夷에 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東夷族이 많이 퍼져 살고 있었던 발해연안 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돌무지 무덤’과 ‘지석묘’는 가족 공동묘로 추정되어 고대인들의 조상숭배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되고 있으며¹⁵⁾ 이는 곧 한국인의 繼世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삼국시대 임금들이 초창기부터 祖廟, 神廟등의 神宮을 세운 사실, 그리고 매년 봄 임금들이 始祖廟를 참배했다는 기록, 임금이 교제에 쓸 돼지의 뒷다리를 다치게 했다 하여 신하를 무참하게 죽인 사건이나¹⁷⁾ 「고려사」<열전>에 趙浚이 동방에는 본디 家廟法이 있으며, 당시에 도 國都나 郡縣에 집이 있는 이는 神祠를 세워 ‘衛護’라 하는 家廟의 遺法이 있었다는 것,¹⁸⁾ 그것이 朱子家禮로 이어져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점, 굿마당에서 ‘조상거리’가 중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래 전부터 祖上崇拜의 文化傳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고대 중국인들의 韓國觀은 唐의 현종에서 宋의 영종에 이르기까지 國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아득한 옛부터

14) 유승국, 앞의 글, 166-167쪽.

15)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서울 : 집문당, 1984), 153쪽.

16) 변태섭, 한국고대계세사상과 조상숭배신앙, 《역사교육》 3·4, (서울 : 역사교육연구회, 1958), 73-84쪽.

17) 『三國史記』 卷一, 신라본기, “南解次次雄立 三年春三月 立始祖廟”; 卷十三,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十四年秋八月 太后禮葬之 遂立神廟”; 卷二十三, 백제본기, “元年夏五月 立東明王廟”; 卷十三, 고구려본기, “琉璃明王 十九年秋八月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蓋可傷也 遂投二人抗中殺之”.

18) 이동준, 「한국사상사대계 서설편-유교적 측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상사대계』 1,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26쪽.

異方과는 달리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文化民族’이라는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도 그러한 민족적인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왔다. 당나라에서 오랜 동안 유학생활동을 했던 최치원의 지증대사비문에서도 ‘君子之鄉’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東方禮義之國’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말미(말미암음)’를 전해주는 口傳의 歷史 속에서도 ‘君子國의 風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족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형성해서 유구한 삶을 꾸려왔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檀君神話의 內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고대인들이 현실을 설명했던 구전의 역사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의식구조이며, 사고방식이고, 신앙이며, 삶 자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신화는 태고의 옛 이야기로서 한 民族의 역사와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종교와 사상, 교육과 정치 등이 현대와 같이 분화되기 이전의 태고적 이야기들이다.²⁰⁾ 그러므로 신화는 전논리적 사고, 유아적 사고, 무의식적 사고의 특징을 갖는다.²¹⁾

그런 의미에서 民族神話는 한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根源語이고, 한 민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테’나 ‘틀’이 될 수 있는 原型이다.²²⁾ 뿐만 아니라 신화는 보이는 것에 의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象徵의 記號體制 또는 象徵의 敘事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檀君神話는 한민족과 한국문화가 역사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始原을 밝혀주고,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 정치와 종교, 교육 등이 현대와 같이 분화되기 이전에 나타나 있는 ‘意味의 象徵體’라 하겠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단군신화를 교육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²⁴⁾ 한국인은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삶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천상을 마다하고 온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사달의 단군이 숨어서 백악산의 산신이 된 것을 보면 죽어서도 이승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 있어 ‘삶다운 삶’은 ‘사람다운 삶’을 의미하며, 그것은 널리 이승을 이롭게 하는 삶이다. 그런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

19) 유승국, 앞의 글, 67-68쪽.

20) 이계학,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황성모박사화갑기념논문집,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서울: 심설당, 1985), 125-150쪽.

21) 이병운, 단군신화의 정신분석, 《사상계》 12, 1963, 258쪽.

22) 김열규, 『한국의 신화』, (서울: 일조각, 1987), 120쪽.

23) 김열규, 「한국신화의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사대계』 1, 앞의 책, 423쪽.

24) 이계학, 앞의 글.

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사람다운 사람은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꿈녀로 변신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가’ 당면하는 쑥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동굴처럼 암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승에서 人格을 실현한 ‘홍익인간’은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숨어서 山神(산사람/仙)이 된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신념이고 신앙이었다.

단군의 탄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시조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신한 꿈녀와 ‘사람다운 사람’으로 假化한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다운 사람’의 精髓가 한국인들의 祖上이란 이야기요, 그가 한국인이 願望하고 있는 ‘理想的인 人間像’이란 이야기다. 한국인의 말미와 본풀이를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상의 열(核)이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 즉 ‘弘益人間 하는 삶’에 있고, 그로 인해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이 ‘君子다운 風貌’로 비추어지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東夷族에 대한 중국의 正史와 고대문헌, 은대의 갑골문자나 녹두각사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사람됨과 삶의 모습,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이나 단군신화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삶다운 삶의 원형’, ‘사람다운 사람의 원형’은 한민족에게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할만하며, 한민족 문화의 원형은 ‘사람다운 삶’과 ‘조상을 숭배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한민족의 文化傳統은 늦어도 기원전 13세기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란 말과 ‘삶’이란 말이 ‘살다’라는 말의 同根同族 名詞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문화의 핵은 ‘살’이라 할 수 있고, 사상적으로는 ‘삶이즘’, ‘사람이즘’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의 주체란 측면에서 보면 ‘人格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격교육의 방법적인 원리는 삶 속에서 사람다움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며, 인격교육의 過程的 原理는 일찍이 반 계림이 규명한²⁵⁾ <고난 => 죽음 => 재생>이라고 하는 통과의례의 전형적인 과정과 멀치아 엘리아데가 밝힌²⁶⁾ 聖俗辨證法的 過程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됨의 과정이 요구하는 학습자의 특성은 ‘자발성’, ‘열정성’, ‘인내성’이라 하겠다.

25) Gennep, A.V.著, 서영대 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 (서울 : 학민사, 1983).

26) M. Eliade, *The Sacred and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9) ;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1974).

2. 한국교육의 원형

앞서 단군신화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상적으로 염원하는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은 홍익인간 하는 삶이요, 사람다운 사람은 홍익인간 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익인간은 고대 우리 민족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요,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이다.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은 그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에서 당면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교육사상은 ‘人格主義 教育思想’이라 하겠다.

한편 祭儀學派에 따르면 신화는 祭儀가 언어화된 것이고, 祭儀는 신화를 행동화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²⁷⁾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단군신화는 고대 우리 민족의 공교육제도였던 성년학교에서 행했던 교육의 절차와 내용, 교육의 이념과 방법 등이 前論理的인 形態로 혼용되어 있는 ‘韓國教育의 原型’이라 할 수 있다. 단군신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과 이념, 교육의 방법적 원리, 교육의 절차와 내용을 통해 고대 한국교육의 원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의 목적과 이념은 弘益人間으로 대변되는 바, 祭·政·教가 분리되지 않은 단군시대에 있어 한국인의 삶의 이념은 정치의 이념이고, 종교의 이념이자, 교육의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이 곧 한국인의 삶의 이념이자 정치이념이며, 교육이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바로 지금 여기 이층에서 삶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이념이자 교육의 이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은 제사장이며, 임금이자 스승이다. 그것이 수 천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에 있어 교육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단군신화에 함의되어 있는 교육의 방법적 원리는 ‘自發性的의 原理’, ‘至誠의 原理’, ‘忍苦의 原理’, ‘覺悟의 原理’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自發性的의 原理란 홍익인간이 되는 것,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강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원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온 것도 자발적인 원망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곰녀가 사람이 된 것도 자발적인 원망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곰녀가 단군을 잉태한 것 역시 자발적인 원망에 의한 것이었으며, 단군이 숨어서 산신이 된 것도 자발적인 원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단군신화의 전체 내용에서 자발적인 원망이 중시되고 있는데, 특히 곰녀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의 자발성은 인격교육에서

27) 김열규, 앞의 글, 59쪽.

의 자발성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것이 『擊蒙要訣』에서는 <立志章>로 나타나고 있다.²⁸⁾

둘째는 至誠의 原理이다.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우리 민족의 신념은 수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 지성의 원리는 자발적인 원망만 가지고는 흥익하는 인간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일 때 비로소 자발적인 원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곰과 호랑이의 대비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지성의 원리는 자발성의 강도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자발성의 강도가 感天할 만한 程度가 되어야 비로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온 것도 그 자발성이 감천했기 때문이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된 것도 천신(환웅)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며, 곰녀가 사람이 된 것도 지성이 감천할 만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며, 단군을 잉태한 것 역시 지성이 감천 할만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忍苦의 原理는 곰녀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원리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쑥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동굴처럼 암울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自己의 이익만을 챙기는 유아적인 삶에서 벗어나 弘益人間하는 사람다운 삶으로의 전환은 양적인 전환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이다. 그러므로 物格半 人格半의 반쪽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며, 그 고난을 극복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 속에서 당면하는 그 갈등과 고난을 극복할 때 비로소 인격에 변증법적인 재구조화가 일어나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에서 당면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覺醒의 原理, 곧 깨달음의 원리이다. 곰녀가 탄생하는 알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원리는 인고의 원리와 관련된 원리로서 신비롭게도 알속에서 3×7일 만에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 그가 당면하는 갈등과 고난을 극복할 때 비로소 곰녀처럼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만 그것을 감내하지 못할 때는 호랑이처럼 그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종합해 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감천할 만한 자발적인 소망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가 삶에서 당면하는 고난을 극복해야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온전한 인격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됨의 過程의 原理로 표현하면 <고난의 당면→정신적 죽음의 실천→재생>이라

28) 栗谷, 『擊蒙要訣』, 立志, “初學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할 수 있다. 이 사람됨의 과정은 신비체험의 과정으로 엘리아데가 밝힌 降神巫가 되는 과정을 그대로 답아 있다(Eliade, M. 1957). 뿐만 아니라 반 계념이 규명한 성년입사식이 라는 통과례 속에 새로 태어나기 위한 의례적인 죽음과 재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 圖式은 ‘고난-죽은-재생’이고, 이 죽음과 재생이 곧 엑스타시 체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²⁹⁾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신화에 함의되어 있는 사람됨의 過程的 原理는 불가의 깨달음, 유가의 입신, 성리학의 활연관통, 기독교의 회심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홍익인간은 유태의 랍비요, 인도의 구루이고, 불가의 禪師들이다.

끝으로 교육의 절차와 내용은 단군신화를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면 성년식에 참여하는 성화된 광장에 ‘願化爲人!’, ‘願化爲人!’ 외치며 청년들이 운집한 가운데 풍악을 울리면서 천부인 세 개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린 환웅(추장)이 등장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 즉 쑥과 마늘을 먹고 밀폐된 동굴에서 100일을 금기하라는 것을 일러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성년입사식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쑥과 마늘로 된 음식을 받아 각자 밀폐된 동굴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3×7일만에 풍악의 신호에 맞춰 청년들이 일제히 합성을 지르며 광장으로 나오고, 성년식을 축복하기 위해 참여한 부족들이 술과 음식으로 축제를 벌였을 것이고, 다음 날 성년식을 마친 청년들은 성년학교인 남성가옥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위의 성년식에서 의식으로 행해졌던 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신화에 함의되어 있는 그 상징과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의 화신이 단군이며, 그가 우리의 조상이고, 임금이고, 스승이며, 이승에서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실현한 인격은 죽어서도 단군처럼 죽지 아니하고 산신(山사람/仙)이 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단군신화를 통해 살펴 본 韓國教育의 原型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의 개국의 이념이고, 삶의 이념이자 교육의 이념은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弘益人間하는 사람이며, 삶이다. 그러나 弘益人間하는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은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격교육의 원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발성과 열정성, 바로 그가 삶에서 부딪게 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참을성, 그리고 변증법적인 전환을 거쳐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각성이다. 그리고 이 교육의 절차는 단군신화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9) 유동식, 앞의 글, 63쪽.

III. 전통가정교육사상의 방법적 원리

1. 孝와 敬

고대 한국인의 ‘인격주의 문화’와 ‘조상숭배의 전통’, 그리고 ‘성숙변증법적 교학사상의 풍토’ 속에 A.D. 372년 고구려는 太學을, A.D. 682년에 신라는 國學을 설립함으로써 공식적으로 先秦儒家의 敎學思想을 마찰 없이 수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性理學이 이 데올로기를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性理學의 敎學思想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수용한 선진유가와 성리학의 교학사상이 갑오개혁 이전까지 家庭이라는 교육마당에 정형화된 것이 이른바 우리의 ‘傳統家庭教育思想’이다.

性理學의 기본교재이며 전통가정교육의 敎範이었던 「小學」에 보면 ‘女有五不取’라는 가르침이 있다.³⁰⁾ 여자가 出嫁할 때 취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금지조항이다. ‘逆賊의 자식을 취하지 말고, 淫亂한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말며, 犯罪者의 자식을 취하지 말고, 대대로 遺傳病이 있는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말며, 喪父長子를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앞의 네 조건은 이해가 가지만, 다섯 번째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버릇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을 ‘호로자식’이라 일컫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해도,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난 그 장남에게 ‘딸자식을 시집보내지 말라’는 가르침은 비정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면 「小學」에 왜 이 조항이 포함되어야만 했는지 ‘저간의 사정’을 儒家의 인간관과 교육사상을 통해 고찰해 보면서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孝와 嚴父慈母의 敎育原理가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儒家의 人間觀에 따르면 인간은 철저히 ‘關係의 存在’이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잇적 존재’, ‘관계적 존재’를 의미한다. 유가의 世界觀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三綱五倫’에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儒家의 世界觀 속에서 禮論이 논쟁이나 당쟁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先秦儒家의 敎育에서 가장 중시해 온 경전은 「論語」와 「孝經」이다. 현대의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論語」는 주로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상, 즉 君子像을 제시하고 있으며, 「孝經」은 君子를 교육하기 위한 方法論을 제시하고 있다.

30) 『小學』, 五不取, “女有五不取 逆家者不取 亂家者不取 世有刑人不取 世有惡疾不取 喪父長子不取”.

그런 까닭에 유가의 교육에서는 이 두 교과를 필수교과로 부과하였던 것이다.

『論語』의 첫째 장을 보면 “君子는 근본에 힘쓰나니 孝弟는 仁을 완성해 가는 根本”이라 하였고,³¹⁾ 『孝經』의 첫째 장에서도 “孝는 德의 根本이기에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하였다.³²⁾ 따라서 孝는 人之德인 仁을 완성해 가는 방법적 원리이자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고, 자녀들의 행동규범이다. 따라서 왜 孝가 仁, 즉 德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적 원리가 되고, 왜 그것이 이른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 되는지를 규명해 보아야 하겠다.

『論語』에 보면 “犬馬도 능히 사람에게 봉양할 수 있거늘 부모에게 不敬하면 어찌 禽獸와 다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고,³³⁾ 孝에 대한 子夏의 질문에서도 “언제나 즐거운 낮으로 부모를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일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수고를 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어른께 드린다. 그러나 어찌 이것만으로 孝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여³⁴⁾ 孝의 本質이 부모에 대한 供養이 아니라 ‘敬’에 있으며, 孝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의 態度’, 즉 敬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또한 『孟子』에서 ‘仁은 人心’이라 한 것을 보면³⁵⁾ 敬은 仁이 발현된 ‘마음의 상태’라 하겠다.

『孝經』에 보면 “사람의 행위 가운데 孝보다 큰 것이 없고, 孝는 아버지를 敬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敬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여 하늘같이 아버지를 敬하라고 하였다.³⁶⁾ 또한 君子가 孝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남의 아버지 된 자를 敬하라는 것이요, 우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남의 형된 자를 敬하라는 것이고, 신하노릇을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임금 된 자를 敬하라는 것”이라 하였다.³⁷⁾ 또 이르되 “禮란 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 아버지를 敬하면 아들이 기뻐하고, 제 형된 자를 敬하면 아우가 기뻐하고, 제 임금을 敬하면 천만 사람이 기뻐하니 敬하는 자는 적은데 기뻐하는 자가 많으니 敬은 禮의 要道”라 하였다.³⁸⁾

이것을 보면 효의 본질은 봉양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敬하는 마음에 있고, 효를 통

31) 『論語』, 學而, “君子務本 本立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32) 『孝經』, 開宗明義章,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

33) 『論語』, 爲政,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34) 『論語』, 爲政, “子夏問孝 子曰 色難 有事 弟子服其勞 有酒食 先生饌 曾是以爲孝乎”.

35) 『孟子』, 告子 上, “仁人心也. 義人路也”.

36) 『孝經』, 聖治章, “子曰 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37) 『孝經』, 廣至德章, “君子之教以孝也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 教以弟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 教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

38) 『孝經』, 廣要道章, “禮者敬而已矣 故 敬其父則子悅 敬其兄則弟悅 敬其君則臣悅 敬一人而千萬人悅 所敬者寡而 悅者衆 此之謂要道也”.

해서 길러지는 敬은 ‘밖으로’ 曲禮三千의 要諦라 하겠으며,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관여하는 일체의 관계를 律하는 올바른 準則, 또는 原理라 하겠다. 그러므로 孝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孝教育의 目標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孝經」에 의하면 효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立身行道’에 있다. 「孝經」의 大意를 총괄하고 있는 <開宗明義章>에 효교육의 방법과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이 孝의 始作이며, 立身行道하고 揚名於後世하여, 그 부모를 드러내면 효의 끝”이라 하였다. 이어서 孝心の 擴大過程을 제시하여, “무릇 孝는 始於事親에서 中於事君하여 終於立身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孝教育의 목표가 ‘안으로’ 부모를 敬하는 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밖으로’ 확대하여 드디어는 立身行道에 이르기 위한 인격확립의 방법적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孝教育의 궁극적 목표인 ‘立身行道’란 무엇인가?

立身行道를 字句대로 해석하면 “몸을 세워 길을 걷는다”는 뜻이다. 보통 두 돌이 되기 전에 유아들은 立身行道를 하므로 孝教育의 최종목표로 제시된 立身行道란 은유적 표현이다. 「孝經」에서 말하는 立身은 네 발로 걷는 畜生같은 인간이 효심의 확대과정을 통해 두 발로 풀섰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다운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론적으로 해석한다면 ‘立身行道’란 사회에 나아가 입신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孝心の 擴大過程, 즉 敬의 擴充過程을 통해 ‘안으로’ 人格을 確立하는 것,³⁹⁾ 또는 敬으로써 自己 同一性を 確立하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孝를 통해 立身하는 교육의 과정, 교육의 원리, 입신의 상태를 한국인의 안목에서 실감나게 밝혀 놓은 教育古典이 바로 「심청전」이다. 「심청전」에 의하면 입신하기 위해서는 ‘至誠이 感天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심청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간절한 원망’에 따라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열정의 정도가 ‘殺身成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보잘 것 없는 봉사의 여식이 왕비로 거듭날 수 있었다. 임당수에 자신의 全存在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 심청은 ‘신비롭게도’ 왕비가 된 것이다. 이는 곧 죽음의 실천을 통해서만 ‘立身’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심청의 이야기는 孝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인간으로 立身하는지를 은유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孝教育의 過程과 教育原理, 立身の 狀態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

39) 이을호, 「효의 윤리와 가정교육」, 단국대학교새마을연구소(편), 『충효교육』,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66쪽.

40) 윤성범, 『孝』,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7), 54-55쪽.

는 심청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선진유가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이자 한국적 수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先秦儒家의 교육이념은 ‘살다운 삶’이고 살다운 삶은 ‘군자다운 삶’이며, 군자는 孝를 통해 敬을 확충해 나아감으로써 立身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孝教育의 기본과정은 <부모공경 → 이웃공경 → 입신>이며, 입신은 심청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의 당면 → 죽음의 실천 → 입신>, 즉 聖俗辨證法에 의한 새로운 ‘人格의 誕生’이다.

그러고 보면 孝의 본질인 敬은 부모공경의 바른 태도를 넘어 ‘人格의 實體’임이 분명해진다. 敬의 概念을 철학적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킨 성리학에 따르면,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敬”으로써 “敬은 인격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다.⁴¹⁾ 즉 성리학자들은 敬을 체득하여 확충해 나가는 持敬方法을 인격교육의 방법적 원리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理를 窮究하는 認識의 根據로까지 발전시켰다. 居敬窮理論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敬이 ‘밖으로’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일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리가 되고, ‘안으로’는 인격의 실체이자 인식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

앞서 究明한 바와 같이 敬은 부모를 섬기는 바른 태도이다. 따라서 敬은 바르게 부모를 섬기는 마음, 즉 敬心이며, 이 敬心이 신과 자연에 대해서는 畏敬心, 부모에 대해서는 恭敬心, 어른에 대해서는 尊敬心, 어린이에 대해서는 尊重心, 자신에 대해서는 自敬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마음인가? 『孝經』<선비장>으로 돌아가 본다.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로써 어머니를 섬기되 그 사랑(愛)하는 마음을 같이 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로써 임금에 섬기되 그 敬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敬하는 마음을 취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겸유한 이가 아버지이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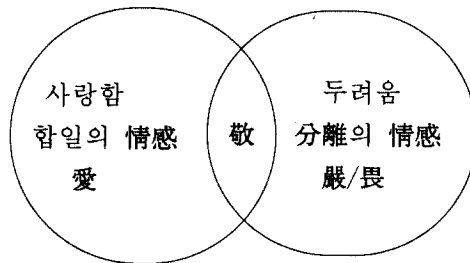
이것을 보면 효의 본질은 愛敬心, 즉 ‘사랑’과 ‘존경’의 복합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문장의 맥락을 意味論的으로 解釋하면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에게서 취하는 愛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임금에게서 취하라는 敬은 ‘존경한다’는 의미의 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專制君主制 사회에서 임금은 존경할 敬의 대상이 아니라 ‘삼가할’ 敬의 存在, 즉 백성들의 生死를 좌지우지하는 ‘두려움’의 象徵이다. 따라서 <선

41) 退溪, 『聖學十道』, 心學圖說, “蓋心者 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

42) 『孝經』, 士章, “資於事父以事母其愛同. 資於事父以事君其敬同. 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 兼之者父也”.

비장>에 나타난 효의 本質은 의미론적으로 볼 때 ‘사랑’과 ‘두려움’의 복합개념, 즉 愛와 嚴/畏의 복합개념, 즉 사랑과 두려움의 兩價情感이라 할 수 있다.⁴³⁾ 효의 본질이자 關係의 存在인 인간관계를 律하는 기본원리로서 敬이 왜 인격의 실체가 되는지에 대해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랑’이란 合一의 情感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둘은 하나가 되고자 하므로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도록 하는 接合劑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정감은 인간이 일체 만물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質料’로 작용한다. 반면 ‘두려움’이란 分離의 情感이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하므로, 두려움은 관계적 존재인 사람으로 하여금 ‘너와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離間者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인격의 실체인 敬은 ‘사랑’과 ‘두려움’의 兩價情感이 복합된 정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敬이란 사랑하기에 멀리 할 수도 없고, 두렵기에 가까이 할 수도 없어서 ‘온당하게 멀고, 온당하게 가깝게’ 인간의 관계를 律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해 보면 위의 <그림-1>과 같다. 또한 효교육의 방법이나 성리학의 持敬方法을 통해 敬을 확충시켜 나가면 인격을 확립하게 되는 바, 이 사람됨의 과정, 곧 인격의 확립과정을 다시 도형으로 제시해 보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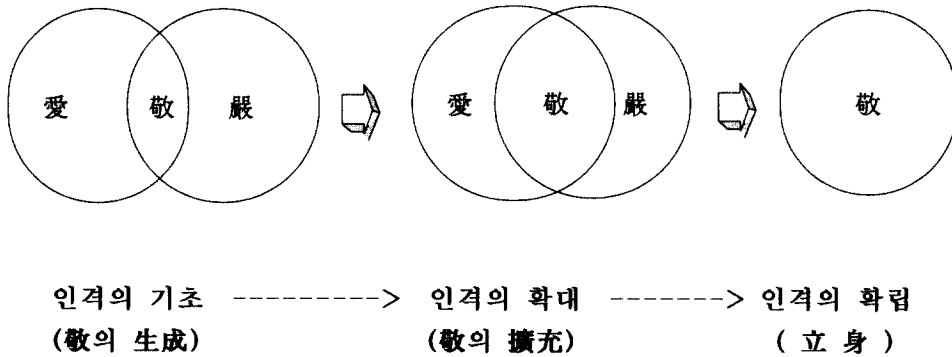


<그림-1> 敬의 基本構造

이 그림을 통해서 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程伊川의 설명, 즉 정신을 집중하여 흠여짐이 없고, 밖으로는 가즈런히 정돈되고 엄숙한 상태(主一無適 整齊嚴肅)라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을 단속하여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음(其心收斂 不容一物)이 敬이라 한 尹和靖의 설명이나 정신을 항상 똑똑하게 일깨우는 법(常惺惺法)이라고 한 謝上蔡의

43) 이계학,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서울 : 동덕여자대학, 1980), 89-91쪽.

敬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어렵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2> 立身の 過程과 狀態

2. 嚴父慈母

앞서 孝의 本質인 敬은 가정이란 환경 속에서 부모공경의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인격교육의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祖上을 崇拜하고 인격을 중시하는 우리의 傳統文化에서 지금까지도 孝를 그토록 중요한 德目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 敬을 함양해 가는 자연스런 방법이 ‘孝’라면,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인격을 바르게 함양하도록 양육해 나가는 가정교육의 원리는 ‘嚴父慈母’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머니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嚴母慈父의 原理로는 사랑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父性愛와 母性愛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조건적이고 평등한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건적이고 생취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⁴⁴⁾

44) Fromm. E., *The Art of Loving*,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56), pp.38-42.

인간은 모성과의 관계맺음, 즉 모자간 유대관계를 통해 사랑을 體認하면서 인간관계의 기본 꼴을 형성해 나간다. 생의 초기에 형성된 모자간 愛着은 어린 유아에게 안정감과 보호감을 제공하여, 두려움 없이 삼라만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 ‘인격의 크기’를 결정짓는 質料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지움을 통해 획득한 유대관계의 기본 틀(쉐마)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연스런 대상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그의 품은 자연에 뿌리를 둔 어머니의 품과 다르다. 아이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품은 따뜻하고 정답게 느껴지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어설피고 두려운 낯선 품이다. 이 품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과 ‘두려움’이 복합된 야릇한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

Fromm(1956)의 말대로 어머니는 자연의 세계 그 자체이지만, 아버지는 인간존재의 다른 極, 법과 질서, 훈련과 여행, 모험과 같은 인공의 세계로 아이들을 안내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훈계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인간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⁴⁵⁾ 아버지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보다 빈번한 ‘欲求挫折’을 맛보게 된다. 때로는 욕구좌절을 울음으로 호소하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아버지에게 의해 번번히 좌절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의 좌절감은 이후 尊敬感으로 내면화된다.

社會權力說에 의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공격자의 처벌적 기능을 내면으로 받아들일 때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공격자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된다고 한다.⁴⁶⁾ 또한 공격적 행동이 좌절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키는 인내심을 키우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따뜻한 존재인 동시에 法과 罰을 상징하는 ‘두려운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일수록 자녀들의 尊敬感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두려우면 자녀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돌변한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은 대상을 알 수 없는 무서움이지만, 무서움은 대상을 알고 있는 두려움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回避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그만 상실하게 되고 만다. 그런 연유로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에서는 ‘溫情的인 아버지이면서도 嚴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嚴字에 親字

45) 위의 글, 42쪽.

46) 김호권, 「도덕성의 발달과 교육」, 정원식 외, 『정의의 교육』, (서울: 배영사, 1972), 222-223쪽.

를 덧붙여 아버지를 ‘嚴親’이라 한 것이다.

父性愛의 本質이라 할 수 있는 ‘두려움’은 인격의 실체인 敬의 심리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격형성의 兩大支柱를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따라서 부성의 두려움은 모성의 사랑과 함께 인격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에 가정교육의 체험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 하겠다. 어머니의 사랑이 인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질료’로 작용한다면, 아버지의 두려움은 인격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빵 만들기에 비유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빵의 크기를 결정하는 밀가루와 같은 구실을 하고, 아버지의 두려움은 빵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틀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앞서 「小學」에 제시된 五不取의 마지막 조항인 ‘喪父長子를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부성애의 교육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인격의 틀을 중시한 데서 비롯되었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嚴父慈母라는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원리가 비단 儒家의 教學思想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빛 바랜 교육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嚴父慈母의 家庭教育原理야말로 인간이 關係的 存在인 한 시공을 초월한 人格教育의 탁월한 方法的 原理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IV. 맺음에

본고에서는 家庭이라는 교육의 마당에 구체화된 전통가정교육사상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교육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의 전통교육사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인의 삶과 교육문화의 原型을 짚어보았으며, 孝와 敬, 嚴父慈母의 原理를 중심으로 전통가정교육사상의 내용과 방법적 원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발해만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 온 ‘東夷族’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君子다운 風貌’를 지닌 사람들이었으며,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역사의 여명기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君子之國’ 또는 ‘君子不死之國’으로 인식해 왔다. 한국인 스스로도 ‘君子之鄉’, ‘東方禮義之國’이란 自矜心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본풀이’요, ‘말미’라고 할 수 있는 단군 신화를 살펴 본 결과, 한국인의 삶이자 교육의 이념은 곧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삶’, 넓은 의미로는 ‘弘益人間 하는 삶’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弘益人間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며, 인격교육의 기본적 과정은 <고난의 당면→죽음→재생>이고, 여기에 원용된 교육의 방법적 원리는 ‘자발성’, ‘열정성’, ‘참을성’,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단군신화와 삶 자체였다.

단군신화에 표방된 이 ‘人格主義’는 선진유가와 성리학의 敎學思想을 수용하여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으로 정형화되었다. 유가에 따르면 인간은 關係的 存在이고, 그 본질은 仁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君子인데, 君子가 仁을 실현하는 방법적 원리가 곧 德의 根本인 孝이며, 孝의 本質은 ‘사랑’과 ‘두려움’의 복합정감인 ‘敬’에 있었다. 따라서 孝教育의 최종목표인 立身行道는 敬의 확충을 통해 仁을 실현한 상태이며, 이를 이룬 이가 바로 君子 곧 ‘홍익인간’이라 할 수 있다.

전통가정교육에 있어 孝는 ‘자녀들이’ 부모공경의 생활을 통해 인격을 확립해 가는 자연스런 인격교육의 방법적 원리이고, 嚴父慈母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격의 바른 틀을 마련해 주고 인격을 바르게 키워 나가도록 양육하는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였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가정교육사상과 방법적 원리는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인 한 한국인의 자랑스런 문화전통이자 보편성을 띤 인격교육의 원리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바른 틀’임에 틀림없다.

〈참 고 문 헌〉

『擊蒙要訣』

『論語』

『孟子』

『聖學十圖』

『孝經』

김열규(1987), 『한국의 신화』, 서울 : 일조각.

김호권(1972), 도덕성의 발달과 교육, 『정의의 교육』, 서울 : 배영사.

변태섭(1958), 한국고대계세사상과 조상숭배신앙, 『역사교육』 73-84.

송향룡(1991), 도교신앙의 전개양상과 생활세계, 『한국사상대계』 (2),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호상(1978), 『배달동이는 동이겨레와 동아문화의 발상지』, 서울 : 백악문화사.

- 유동식(1978),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 유승국(1988), 『한국사상과 현대』, 서울 : 동방학술연구원, 1988.
- 윤성범(1977), 『孝』, 서울 : 대한기독교회서, 1977.
- 이계학(1980),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10, 서울 : 동덕여자대학교
- _____(1985),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황성모회갑기념논문집: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서울 : 심설당.
- 이동준(1990), 한국사상사대계 서설편 : 유교적 측면, 『한국사상사대계』 1,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병윤(1963), 단군신화의 정신분석, 『사상계』 12.
- 이은봉(1984), 『한국고대종교사상』, 서울 : 집문당.
- 이을호(1977), 효의 윤리와 가정교육, 『충효사상』,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 최삼룡(1987), 선인설화로 본 한국고유의 선가에 대한 연구, 『도교와 한국사상』, 서울 : 범양사.
- Eliade, M. 著, 李東夏 譯(1983), 『聖과 俗-종교의 본질』, 서울 : 학민사.
- E. Fromm(1956), *The Art of Loving*, N.Y. : Harper & Row.
- Gennep, A.V. 著, 서영대 譯(1986), 『통과의례』, 인천 : 인하대학교 출판부.
- M. Eliade(1974),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 _____,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1959.